

SPECIAL ARTICLE

소화기내과 분과 전문의 교육의 현재와 미래

윤순만, 차재명¹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¹

Gastrointestinal Fellowship Education in Korea

Soon Man Yoon and Jae Myung Cha¹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Cheongju;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¹, Seoul, Korea

Since the residency training program in internal medicine changed from a four-year to a three-year program in 2017 in Korea, issues of an optimal training program for the gastrointestinal (GI) fellowship has arisen. Currently, the evaluation criteria for a GI fellowship in Korea include the following: 1) the total number of assigned patients during the training period, 2) the number of GI endoscopy procedures, 3) attendance at academic conferences, and 4) research presentations. However, competency-based training should be introduced in the GI fellowship training program. The current issues of GI fellowship training in Korea include the following; 1) re-organization of the GI fellowship education system and consideration of an optimal training period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the three-year internal medicine residency training program, 2) development of a standardized, competency-based GI fellowship training program, 3) provision of a support program for instructors in GI fellowship education, 4) introduction of a mentor-mentee system, 5) introduction of an accreditation system for GI fellowship, 6) supplementation of a GI sub-specialty qualification system, and 7) provision of benefits to GI sub-specialists. (**Korean J Gastroenterol 2019;73:7-9**)

Key Words: Gastroenterology; Fellowships and scholarships; Education; Programs

서론

대한내과학회에서는 일차 의료를 담당할 일반 내과 전문의를 양성하기 위하여 세부 분과 교육 내용을 줄이고 일반 내과 교육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고, 2017년부터 내과 전공의의 수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였다.¹ 또한, 3년간 충실히 내과 수련을 받은 후 일반 내과 전문의, 입원 전담 전문의, 또는 세부 분과 전문의로 다양한 진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전공의 3년제 수련이 시작되면 필수적으로 세부 분과 전문의 제도도 변경하기로 하였지만,¹ 이후 세부 분과 전문의 제도 변경에 대한 논의는 거의 진행이 되지 않았다. 한편,

소화기내과 분과 전문의 응시율은 2015년 45.9%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에는 응시율이 37.3%까지 줄어들었다. 따라서, 이번 원고에서는 소화기내과 분과 전문의 제도 개선을 위하여 전공의 수련 기간 3년제에 따른 소화기내과 전임의 교육의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본론

1. 소화기내과 전임의 교육 목표

대한소화기학회 교육위원회에서는 2014년에 기존의 대한내과학회 소화기내과 전임의 교육 목표를 갱신하여 더 구체화

Received January 2, 2019. Revised January 7, 2019. Accepted January 7, 2019.

©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 © 2019. Korean Society of Gastroenterology.

교신저자: 차재명, 05278, 서울시 강동구 동남로 892,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내과

Correspondence to: Jae Myung Cha,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Hospital at Gangdong, Kyung Hee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892 Dongnam-ro, Gangdong-gu, Seoul 05278, Korea. Tel: +82-2-440-6113, Fax: +82-2-440-6295, E-mail: drcha@khu.ac.kr,

ORCID: <https://orcid.org/0000-0001-9403-230X>

Financial support: None. Conflict of interest: None.

하였고, 이후 2017년에 한 차례 더 개정하여 현재의 소화기내과 전임의 교육 목표가 완성되었다.² 소화기내과 전임의 교육 목표에 기술되어 있는 소화기내과 전임의 교육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소화기 질환에 대한 평가와 치료를 이해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다. 2) 소화기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적용되는 각종 검사를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다. 또한, 진단 및 치료 내시경의 적응증과 한계를 이해하며, 진단 및 치료 내시경의 일부를 직접 시행할 수 있다. 3) 소화기 분야의 의학 연구를 분석할 수 있으며, 의과대학 학생 및 전공의를 지도 감독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 목적을 위한 필수 교육 과정으로, 1) 진료 업무(입원 환자 진료, 외래 환자 진료, 응급실 환자 진료, 타과 의뢰 환자 자문 진료), 2) 내시경 술기 교육(진단 및 치료 내시경), 3) 지속적 학문 수련, 4) 연구 업무, 5) 교육 업무를 포함하였다. 또한, 전임의 연차별로 표준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는데, 1년차 과정은 필수로 하였고, 2년차 과정은 선택으로 하였다.

대한소화기학회 교육위원회에서는 2017년 2월에 소화기내과 전임의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는데, 신입(1년차) 전임의들은 전임의 1년차 생활 중 가장 비중 있게 생각하는 부분이 위 내시경 및 대장 내시경 술기 습득이었으며(84%, 45명 중 38명), 기존(2년차 이상) 전임의들도 전임의 생활 중 가장 비중 있게 생각하는 부분이 위 내시경 및 대장 내시경 술기 습득이었다(79%, 48명 중 38명). 한편, 신입 전임의의 경우 전임의 1년차 필수 과정을 제외하고 배우고 싶은 분야는 복부 초음파 검사(45%, 53명 중 24명), 대장폴립절제술(21%, 53명 중 11명), 상부위장관 치료 내시경 술기(11%, 53명 중 6명) 순이었다. 기존 전임의의 경우 전임의 생활을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초음파 술기 습득 및 간질환 환자 진료 기회 부족(36%, 42명 중 15명), 외래 경험 또는 참관 기회 부족(29%, 42명 중 12명), 내시경 초음파, 내시경 점막하박리술, 내시경 역행담체관조영술 등과 같은 진보된 내시경 술기 습득 기회 부족(21%, 42명 중 9명) 순이었다.

현재 전임의 표준 교육 프로그램 중 필수 교육 과정인 교육 관련 업무는 1년차 과정에는 없고 선택 과정인 2년차 프로그램에만 포함되어 있으며, 전임의들이 배우기를 희망하는 복부 초음파 검사 또한 2년차 과정에만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소화기내과 전임의 교육의 경우 필수 과정인 1년차 과정만으로는 전임의 교육 목적을 완전하게 달성하기 어렵고, 전임의들을 충분히 교육시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최근에는 과거 의사들이 청진기를 사용하듯이 복부 초음파 검사가 소화기질환 진료의 일차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복부 초음파 검사의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전임의 수련 과정의 평가 기준(1년차 과정)은 1) 수련 기간 중 총 진료 환자 수, 2) 소화기내시경 검사 건수, 3) 학술 회의 참석,

4) 논문 발표인데, 단순한 소화기내시경 검사 건수에 의한 평가를 외국과 같은 역량 평가(competency evaluation)로 대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³ 하지만, 역량 평가를 위해서는 평가 기준과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2. 소화기내과 전임의 수련 기간

2018년 4월 14일 대한소화기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총 5개 나라에서 소화기내과 전임의 교육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Gastrointestinal Fellow Training in Asia-Pacific Countries”라는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⁴ 이 심포지엄에서 소화기내과 전임의 수련 기간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국내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소화기내과 전임의 수련 기간이 2년 이상이었다. 미국은 전공의 3년 과정 후 최소 3년간의 전임의 수련 과정을 제시하고 있고, 일본은 내과 전공의를 2년 수련한 후 소화기내과 전임의를 3-5년에 걸쳐 추가로 수련하고 있다. 대만은 5년간의 내과 전공의 과정이 있는데, 이 중 2년이 전임의 과정에 해당되었으며, 싱가포르는 3년간 기초 전문가 수련 후 소화기 전임의 과정에 해당되는 3년간의 소화기 전문가 수련 과정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현재 1년의 전임의 수련 기간은 완성된 전임의 교육을 위해서는 충분치 못하므로 수련 기간 연장을 고려해야 한다.

3. 소화기내과 전임의 교육의 현실 및 현안

대한소화기학회에서는 2018년 10월 6일에 “소화기내과 전임의 교육의 현재와 미래”라는 제목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심포지엄을 통하여 현재 우리나라 소화기내과 전임의 교육의 문제점으로는 1) 전임의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2)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의 부재, 3) 전공의법 이후 전공의 업무와의 중복, 4) 과도한 내시경 업무, 5) 지역 및 기관에 따른 교육 수준의 편차, 6) 수련 과정 평가 및 인증 체계 미흡, 7) 전임의 수료 후 교육 프로그램 미흡, 8) 소화기내과 분과 전문의 혜택 부재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소화기내과 전임의 교육의 현안으로 1) 내과 전공의 3년제에 따른 소화기내과 전임의 교육 체계의 재정립 및 전임의 수련 기간 연장 고려, 2) 전임의 연차별 역량 중심의 학습 목표 및 표준화된 수련 프로그램 마련, 3) 전임의 교육 담당자에 대한 지원 마련, 4) 전임의 교육의 멘토-멘티 제도 도입, 5) 전임의 교육에 대한 질 향상을 위하여 수련 과정 평가 및 인증 체계 보완, 6) 분과 전문의의 질 관리를 위하여 자격 인정 및 갱신 기준 보완, 7) 소화기내과 분과 전문의 혜택 마련 등이 제시되었다.⁵

결 론

소화기내과 전임의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미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 나라들의 소화기내과 전임의 교육 체계를 참고하여 국내에 최적화된 전임의 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역량 있고 완성된 전임의 교육을 위해서는 전임의 수련 기간 연장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소화기내과 분과 전문의에 대한 혜택을 마련하고, 분과 전문의의 중요성에 대한 공론화 및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 같다.

REFERENCES

1. Jung HY. Not change, but innovation in training system of internal medicine. *Korean J Med* 2016;91:93-105.
2. The Korean Society of Gastroenterology, The educational objectives of GI Fellowship. [Internet]. Seoul: The Korean Society of Gastroenterology; c2014 [updated 2017; cited 2018 Dec]. Available from: <http://www.gastrokorea.org/material/index.php>
3. ASGE Training Committee, Sedlack RE, Coyle WJ, et al. ASGE's assessment of competency in endoscopy evaluation tools for colonoscopy and EGD. *Gastrointest Endosc* 2014;79:1-7.
4. GI Fellow Training in Asia-Pacific Countries. The Korean Society of Gastroenterology International Symposium; 2018 Apr 14; Seoul, Korea.
5. Yoon SM. The ideal and reality of GI fellowship education in Korea. The Korean Society of Gastroenterology Education Committee Workshop and Joint Symposium; 2018 Oct 6; Seoul, Korea.